

2000년대 행정학의 미래상

이병철
행정학과

〈요 약〉

현재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사회에서 과연 국민에 대한 양질의 봉사를 행정이념으로 하고 있는 행정학이 향후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될지를 예측해 보는 것은 현대와 특히 미래사회 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입각해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처방학으로써의 행정학을 정립해 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곳에선 2000년대의 행정학이 어떠한 변화양태를 띠고 나타날지를 예측하기 위한 2000년대의 행정학의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이미 1986년과 1992년에 델파이기법(Delphi-Technique)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를 예측 전망하였다. 첫째, 한국을 위시한 환태평양권에서 발전될 행정학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계환경, 둘째, 계속 발전하고 새롭게 발생할 행정학교과목분야(이론분야), 세째, 계속 발전하고 새롭게 발생할 행정학연구접근방법(방법론분야), 네째, 행정학의 비교분석(비교행정)의 주요연구 대상영역이다.

분석결과들에 입각해 2000년대 행정학의 미래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계환경 요인으로 가장 강하게 제시된 견해는 과학기술의 혁신, 정보화사회의 도래, 환경오염과 환경보호, 복지사회건설, 도덕윤리문제이다. 그리고 이에 부가하여 세계경제의 불복화로 대변되는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나 세계정치 질서의 변화, 남북관계의 변화, 정부규제완화경향, 자원 및 에너지위기 등과 이러한 모든 사태발전에 기인한 이데올로기나 가치관 또는 기존체제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계속 발전하고 새롭게 발생할 행정학교과목 분야에 대해 가장 강하게 제시된 견해는 환경행정, 지방행정, 계량행정학 및 방법론, 복지 및 노동행정, 경제행정이다. 그 다음이 정보과학과 컴퓨터학, 인공두뇌학, 정책과학, 행정윤리 및 행정책임, 관리과학 등의 첨단과학이론 분야와 가치관 정립을 위한 규범학분야로 나타났다.

세째, 계속 적용되고 원용, 창출될 행정학 연구접근 방법에서 가장 강하게 제시된 견해는 계량분석적 접근, 사례연구, 공공선택적 접근, 정치경제학적 접근, 다원주의적·종합학문적 접근이다.

네째, 행정학의 비교분석(비교행정)의 주요 연구대상 영역에 관해 가장 강하게 제시된 견해는 관료제구조 및 행태영역, 도시 및 지방행정영역, 복지행정영역이다.

Prospect of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21st Century

Lee, Byung-Chul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predict the future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by utilizing delphi technique. Also, This study extends its focus to forecasting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ory and methods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in a world context.

The pattern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tudy will be influenced in the future by the world environme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coming of information society, environment pollution and protection, construction of welfare society and civil moral rearmament. The results of a delphi analysis, collecting the responses of professional analysts and professors related to public administration and government officials in the pacific regions (including the korean scholars and officials) indicate that the influential factors expected to affect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future are: 1) protectionism 2)the change of international relations 3)the chang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4)deregulation 5) the crisis of resources and energy 6)the changing pattern of ideological and belief systems.

The study also predicts that the most likely theoretical contents in the future are: 1)environment administration 2)local administration 3) quantitative field and methodology(including the management science) 4) welfare and labor administration 5)economical related field 6)information science and computer science(cybernetics) 7)policy science 8)equity and public ethics. The public administration experts also forecast that the most likely methods are: 1)quantitative approach 2)case study 3)public choice approach 4)political economy approach 5)interdisciplinary approach.

The study also demonstrates that comparative administration will continuously expand in the following areas: 1)Bureaucratic structure and behavior 2)urban and local administration 3)welfare administration.

제1장 머릿말

허만 칸(Herman Kahn)¹⁾이나 다니엘 벨(Daniel Bell)²⁾이 서기 2000년대 이후에 도래할 후기산업사회모형(post-industrial society model)을 예견, 제시한 바 있고 토플러(Alvin Toffler)³⁾나 네이스비츠(John Naisbitts)⁴⁾ 등도 미래에 닥쳐 올 사회적 변화와 기술혁신에 대해 언급하고 있듯이, 앞으로 도래될 사회적 변화는 필연적이며, 이에 인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이의 변화와 도전을 받아 들이고 이에 슬기롭게 응전해 나가야 되리라 믿는다.

이미 옛적에도 미래에 대한 인간적 호기심과 외경심은 주술, 점성술, 천문학들의 발전을 촉발시켰고 그들이 예언한 내용은 비록 주먹구구식의 직관이나 영감 또는 감각에 의한 것이긴 했으나 일면 과학적인 조사방법과 분석기법이 사용된 면도 없지 않았다. 특히 예를 들어 점성술에서 달이 만월이 되면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더 홍분이 되고 감정이 격앙이 되어 다툼이나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금까지의 경험적, 실증적 자료에 근거해, 만월시에 재앙이 닥칠거라는 예언들은 비록 현대적 감각에선 우스꽝스럽지만 그래도 그들나름의 체계적인 경험에 입각한 통계적 확률의 원시적 적용이란 축면에선 과학적 접근의 시도였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은 과거와 현재의 집적된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하여 앞으로 도래할 미지의 세계를 예견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이것은 현대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⁵⁾ 또는 비연속적 사회⁶⁾에

-
- 1) Herman Kahn, and Anthony J. Wiener, *The Year 2000: A Framework for Speculation on the Next Thirty-Three Years* (New York: Macmillan, 1967).
 - 2) Herman Kahn and William Brown, "A World Turning Point-and a Better Prospect for the Future", *Futurist*, December 1975, pp. 289-292.
 - 3) Herman Kahn, *The Next 200 Years* (New York: Morrow, 1976).
 - 4) Daniel Bell, "The Future World Disorder: The Structural Context of Crisis", *Foreign Policy*, No. 27, Summer 1977, pp. 109-135.
_____,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Basic Book, 1976).
_____(ed.), *Toward The Year 2000: Work in Progress* (Boston, Mass.: Beacon Press, 1967).
 - 5) Alvin Toffler, *The Third Wave*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 1980).
_____, *Future Shock* (New York: Boston Books, 1971).
_____, *Power Shift: Knowledge, Wealth and Violence at the Edge of 21st Century* (New York: Boston Books, 1990).
 - 6) John Naisbitts, *Megatrends: Ten New Directions Transforming our Lives* (New York: Warner Books, 1984).
 - 7)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바 있는 갈브레이트(John Kenneth Galbraith) 교수는 아담 스미스 이후 이론화된 고전경제학의 발전과정을 경제사상사적인 축면에서 고찰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현대경제사상에는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그러한 맥락에 입각하여 현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로 규정짓고 있다.
John Kenneth Galbraith, *The Age of Uncertainty* (Boston, Mass.: Houghton Mifflin Co., 1977) 참고.
 - 8) 미국 경영학의 거제 또는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는 드러커(Peter F. Drucker)도 현대경영학이 저하고 있는 상황의 특이성을 난절적이고 비연속적으로 이해하면서 이러한 기대예측성이 없는 현대경영환경을 비연속적 사회로 규정짓고 있다.
Peter F. Drucker, *The Age of Discontinuity: Guidelines to Our Changing Society* (New York: Harper and Row, 1969) 참고.

선 더욱 그 필요성이 절실히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치열해지는 국제간의 정치, 경제, 군사적 경쟁과 국내의 정치적 소요, 경제침체에 따른 경제불안, 사회적 동요는 바로 현시대의 종체적 위기관리 능력의 제고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예측에 대한 간절한 회구는 그 존재의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급변과 필요에 따라 행정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사회적 제반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은 비대화해지고⁷⁾ 이에 따른 구조적 분화는 행정부를 위시한 정부통치기구의 확대를 부채질시켰고, 이는 행정 및 관료제의 비대화와 역기능을 수반케 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지만 한국적 특수상황에 근거해 도시화가 급속히 산업, 경제발전에 힘입어 진행되었고, 이러한 도시화가 지니는 야누스적 양면성으로 인해 도시화의 어두운 면이 환경 및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전통적 가족제도를 붕괴시키고, 인구문제, 주택문제, 교통문제들을 유발시켰으며 급기야는 인간적 소외를 가져오고, 불인정적 사회로 탈바꿈시킴으로 해서 사회적 범죄나 비행이 그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시험하는듯 더욱 문제를 확대, 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현대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사회에서 과연 국민에 대한 양질의 봉사를 행정이념으로 하고 있는 행정학이 향후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될지를 예측해 보는 것은 현대와 특히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입각해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처방학으로써의 행정학을 정립해 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곳에선 2000년대의 행정학이 어떠한 변화양태를 띠고 나타날지를 예측하기 위한 2000년대의 행정학의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이미 델파이기법(Delphi-Technique)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⁸⁾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를 예측 전망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한국을 위시한 환태평양권에서 발전될 행정학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계환경, 둘째, 향후 계속 발전하고 새롭게 발생할 행정학교과목분야(이론분야), 세째, 향후 계속 발전하고 새롭게 발생할 행정학연구접근방법(방법론분야), 네째, 향후 행정학의 비교분석(비교행정)의 주요연구 대상영역이다.

7) 박동서 교수는 정부기능의 비대화이유로 국민의 주권의식의 증대, 국민의 정치참여 의식증대, 생활의 질의 향상에 대한 욕구증대, 행정수요 및 공영역의 확대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그에 부가해 행정부의 3대 기능(안보, 경제성장, 사회개발)중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때 안보와 사회개발기능은 계속 정부주도로 할 수 밖에 없으며 경제성장영역도 다소 민간주도가 제시될 수 있으나 행정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경제와의 관계가 소위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행정수요의 증대를 불가피하게 보고 있다.

박동서, “2000년대의 정치, 행정발전 방향”, 『행정논총』, 제22권 제2호(1984).

박동서, 『한국행정의 미래상』(서울:법문사, 1988), 148-150면에서 개인용.

8)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델파이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다.

우선, 1986년에 조사된 한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권 국가(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의 행정학자나 실무자를 대상으로한 델파이조사자료이다. 그 다음 비교분석적 차원에서 1992년에 조사된 한국행정학자나 실무자를 대상으로한 델파이조사자료이다. 1986년에 조사된 자료는 본 연구자가 박사학위논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던 것이고 1992년에 조사된 자료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를 위해 활용하였던 자료이다.

이병철, “구미행정학의 한국에서의 토착화과정과 한국행정학의 미래전망에 관한 연구”, 서울: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2.

이병철, “한국행정학의 미래전망에 관한 연구: 델파이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26권 제4호(1992, 겨울).

제2장 연구분석준거와 행정학의 미래전망: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이곳에서는 앞에서 천명한 연구목적이 행정학의 미래가 어떠한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나타날 것인가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알아보려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분석의 준거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 문헌분석을 실시하여 설정된 분석준거가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일면, 이에 근거하여 행정학의 미래를 전망하였다.

첫째, 2000년대에 도래할 향후 행정학의 파라다임은 세계환경의 흐름이나 변화를 수용하는 백락과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형성되고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⁹⁾ 이러한 백락에서 볼때 세계환경은 어떠한 흐름과 변화로 행정학에 영향을 줄것인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김동현교수는 한국행정학에 영향을 미칠 미래 사회변동으로 고도산업사회의 도래, 도시화의 확대, 국제개방화의 확대, 민주시민사회의 형성, 다원화의 증대와 대중사회화, 민간주도 경제체제의 구현등을 들고 있으며¹⁰⁾ 박동서교수는 국제관계의 긴밀화, 경쟁의 격화, 산업화의 지속, 도시화의 진전, 참여의식의 향상, 변화의 가속화 등을 들고 있고¹¹⁾ 네이스비츠는 정보사회의 도래, High Tech와 High Touch로 표현되는 과학기술사회도래, 세계경제의 도래, 장기계획의 일반화, 자조(自助)와 분권화, 참여적 민주주의와 수평적 조직의 도래 그리고 선택의 다양성을 들고 있다.¹²⁾ 그리고 벨은 선진경제의 이중적 결속과 부채와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부국과 빙국과의 불균형문제 등 세계경제적 갈등의 도래를 지적하고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으며¹³⁾ 토플러는 새로운 산업의 출현, 지적 정보의 중시, 가치관의 변화, 달획일화도래, 새로운 통합, 생산소비자의 출현, 국가기구의 붕괴 등을 적시하고 있다.¹⁴⁾

이상을 요약해 볼때 향후 행정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계환경요인으로는 고도정보산업사회의 도래, 과학기술사회의 도래, 세계경제의 불록화 등 경제질서의 변화와 인구문제등 환경, 에너지문제의 대두 그리고 국제교류의 증대, 민주화 및 다원화,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의 변화, 도덕 윤리문제의 대두, 국가의 위축과 민간기구의 활성화등을 들 수 있다.

둘째, 2000년대에 도래할 향후 행정학의 파라다임은 새롭게 나타날 행정학교과목분야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다. 쿤(Thomas S. Kuhn)에 의하면 사회의 변화발전으로 기인된 새로운 인식의 가치신념체계의 변화로 새로운 변이(anomaly)를 낳게되고 이것이 정상과학(normal science)으로 정립이 되면 이론중의 이론인 파라다임이 되고 이것은 새로운 교과서

9) 김번웅교수는 한국적 행정학의 파라다임이 한국의 행정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토착적 시각이나 비판행정의 관점이 폐쇄적이거나 방어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한국적 행정학의 토착적 준거를 찾기위해서도 구미(歐美)는 물론 아시아 및 제3세계의 행정현상을 보다 넓고 깊게 연구하여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Bun Woong Kim, "The Democrat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Vol.17, 1991, pp.97-108.

— and Gerald E. Caiden (eds.), *A Dragon's Progress: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Korea* (West Hartford: Kumarian Press, 1991), pp. 3~8, 239-252.

10) 김동현, "한국의 사회변동과 행정의 역할" 김번웅외, 『현대한국행정론』(서울:박영사, 1991), 588-595면.

11) 박동서,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정치, 행정과 인간개발의 과제", 『한국행정의 발전』(서울:법문사, 1983), 410면.

12) 위에 적시한 네이스비츠의 책을 참고하였다.

13) 위에 적시한 벨의 책을 참고하였다.

14) 위에 적시한 토플러의 책을 참고하였다.

적 원리로 나타나 일정기간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한다.¹⁵⁾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앞에서 언급된 세계환경요인이 향후 발전하고 새롭게 발생할 행정학교과목에 영향을 끼칠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학교과목분야에 정보과학분야나 과학기술분야가 돋보이게 대두될 것이며 경제와 관련된 분야인 경제행정, 인구 및 환경, 에너지문제와 관련된 환경행정, 자원행정, 국제교류의 중대에 따른 국제행정, 민주화등과 관련된 지방자치행정, 공기업(민영화(privatization)와 관련), 복지 및 노동행정,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행정윤리 및 행정책임, 행정사, 행정철학 및 사상분야 그리고 국가의 위축과 민간기구의 활성화와 관련되는 규제행정(규제완화나 규제해제등을 내포) 그리고 불확실한 사회변동에 대처키위한 정책과학, 관리과학, 계량행정학 및 방법론, 조직론,¹⁶⁾ 정치경제학 등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윤재풍교수가 연구한 결과를 참고적으로 보면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에 새롭게 발생할 주요교과목들을 보면 기초분야로 조직론이나 인사행정분야 그리고 정책과학(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환경행정론, 비교정부기구론, 한국행정론, 지방행정론, 조사방법론 및 행정계량분석, 관리과학, 행정철학, 행정일반이론, 정치행정론, 행정사례연구, 행정전산론, 행정통제론, 행정과 사회경제, 노동행정, 자원행정, 행정문화론, 사회경제정책 등을 열거하고 있다.¹⁷⁾ 이러한 선행된 실증적 연구결과도 앞의 추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세째, 향후 계속 적용, 원용, 창출될 행정학연구접근방법으로 강신택교수의 실증적 연구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강교수는 연구지향으로 규범적 경험적접근 등을 들고 있고 접근방법Ⅱ로 분류된 곳에 법적 접근방법, 제도적 접근방법, 구조적 접근방법, 행태적 접근방법, 체제적 접근방법을 그리고 접근방법Ⅲ으로 분류된 곳에 구조기능론, 체제론, 의사결정론, 게임론 등 그리고 철학적 입장Ⅳ으로 분류된 곳에는 현상학, 해석학 등을 열거하고 있다.¹⁸⁾ 그리고 종합적으로 1990년대를 전망하면서 정책론, 체제적 접근과 더불어 가치론이 심각하게 검토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으며 사상적으로는 한국의 고전과 동양의 고전에서 교훈을 얻으려 할것이라고 함으로써 역사적 접근과 규범적, 관념적 접근, 문헌분석 접근 등을 상정하고 있으며 비판철학과 현상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다학문적 접근방법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정책분석등과 경험적 연구추세의 강화로 계량적 방법이 많이 사용될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네째, 향후 행정학의 비교행정의 주요연구대상영역은 앞에서 두번째로 언급된 향후 계속 발전하고 새롭게 발생할 행정학교과목분야들과 거의 일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계속 발전하고 새롭게 발생할 행정학교과목분야가 역시 비교론적 접근방법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분야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2000년대의 행정학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타날지에 대한 전망을 4가지 분석영역에

15)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Il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pp.10-23, 52-65.

_____. *The Essential Tension* (Chicago, Il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pp.225-239, 294.16) 전종섭(저), 윤재풍 외(역), 『행정학:구상과 문제해결』(서울:박영사, 1987), 531-532면.

16) 전종섭(저), 윤재풍 외(역), 상계서, 538-540면.

조직의 노화와 쇄신에 관한 연구가 대두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김평웅, 『행정과학서설』(서울:박영사, 1983), 16-17면, 18-19면, 21-22면.

17) 윤재풍, "한국의 행정학교육:대학행정학과 학사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21권 제1호 (1987. 6), 78-80면.

18) 강신택, "행정학연구방법의 변천과정과 앞으로의 방향", 『한국행정학보』, 제21권 제1호 (1987. 6), 15-24면.

따라 문헌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문헌분석을 통한 전망이 사실인지 실증적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사실이라면 실증적 분석의 연구결과에 따라 2000년대의 행정학의 미래상을 정립코자 한다.

제3장 행정학의 미래전망: 델파이조사 자료를 중심으로¹⁹⁾

제1절 향후 행정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계환경요인

(표 1) 행정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계환경요인

예상요인	발생빈도/확률	발생빈도/확률(환태평양)
과학기술 혁신	13(100%)	17(100%)
정보사회화 도래	13(100%)	17(100%)
환경오염과 환경보호	13(100%)	8(47.1%)
복지사회건설	13(100%)	6(35.3%)
도덕 윤리 문제	13(100%)	13(76.5%)
남북관계변화	12(92.3%)	
세계경제의 불록화현상	12(92.3%)	5(29.4%)
정부규제완화경향	12(92.3%)	6(35.3%)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11(84.6%)	13(76.5%)
세계정치질서의 변화	11(84.6%)	2(11.8%)
국제교류의 급격한 증대	11(84.6%)	
자원 및 에너지위기	11(84.6%)	9(52.9%)
이데올로기의 변화	11(84.6%)	14(82.4%)
사회주의권의 몰락	9(69.2%)	
한반도 주변국의 변화	9(69.2%)	
미국행정학의 맥락과 경향	8(61.5%)	
러시아등 원조행정역할증대	7(53.8%)	
신보수주의와 민족주의 대두	6(46.2%)	7(41.2%)
UN의 역할 증대	6(46.2%)	
미국대통령선거	5(38.5%)	

* 자료²⁰⁾: 이병철, “구미행정학의 한국에서의 토착화과정과 한국행정학의 미래전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87. 2), 158면.

이병철, “한국행정학의 미래전망에 관한 연구: 델파이분석기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26권 제4호(1992), 1078면.

상기 두 논문자료를 재구성함.

19) 델파이기법을 사용하여 미래행정의 파라다임을 정립코자했던 학자는 왈드(Emanuel Wald) 교수였다. 그는 『미국행정학회지(PAR)』에 1973년 기고한 “미래행정학의 파라다임을 향해서”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장차 미국행정학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것인지를 연구하였다.

Emanuel Wald, “Toward a Paradigm of Future Public Administration”, PAR, Vol.

먼저 1992년도에 조사된 국내학자와 실무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자면 (표 1)에서 보듯이 금후 한국 행정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계환경 요인으로 가장 강하게 제시된 견해는 100%의 발생확률을 나타낸 과학기술의 혁신, 정보화 사회의 도래, 환경오염과 환경보호, 복지사회 건설, 도덕윤리 문제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첨단과학 분야를 위시한 여러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에 힘입어 정보화 사회가 도래되고 이러한 사회가 행정학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것이란 점과 인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복지사회 건설을 이상으로 하여 행정학이 발전되어 나갈 것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호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되며 더불어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요구도 강화되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행정학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발생가능성의 강도는 약간 약하지만 남북관계의 변화(92.3%)나 세계경제의 불황화 현상(92.3%), 그리고 정부규제 완화경향(92.3%)이 향후 한국 행정학의 발전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폐레스트로이카나 글라디노스트로 대변되는 신사고에 의해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권의 몰락이 1980년대 말에 나타나고²¹⁾ 이로인해 동서진영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탈냉전이 이루어짐으로해서 냉전구도하에서 구축된 한반도상의 남·북한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란 예측과 탈냉전으로 인해 이념적 갈등은 해소되었으나 탈냉전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의 도래로 국가이익 우선주의, 민족주의,²²⁾ 신보수주의의 발현등으로 인해 새로운 국제적 갈등의 표출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러

33. No. 4, 1973., pp. 366-372.

국내에서도 멜파이기법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최평길, 『2000년대의 남북한 관계전망』 (서울:국토통일원, 1986).

_____, 『미리보는 코리아 2000』 (서울:도서출판 장원, 1993).

이병철, “공산권의 개혁, 개방화에 따른 북한의 변화예측연구: 멜파이분석기법을 중심으로”, 『북한·통일 연구논문집(Ⅱ) 정책변화분야』 (서울:통일원, 1990).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평화통일 기반조성연구』 (서울:국토통일원, 1982).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북한의 대외정책변화 양상연구』 (서울:국토통일원, 1983).

멜파이분석기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서나 논문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황동준·양재도, 『남북한관계 예측에 적용할 멜파이 기법등 제 기법의 응용에 관한 연구』 (서울:국토통일원, 1977).

황동준, “미래상황예측 방법의 실제와 응용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 제3권 제1호.

Thomas E. Jones, *Options for the Futur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0), pp.44-67.

Harlan J. Strauss and L. Harmon Zeigler, “The Delphi Technique and its Uses in Social Science Research”, in R. D. Bingham and M. E. Ethridge (eds.), *Reaching Decisions in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New York: Longman Inc., 1982), pp.35-47.

20) 앞에서 설정한 연구분석 준거에 따라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될 연구자료는 1986년과 1992년에 조사된 멜파이자료를 활용하였다. 1986년에 실시된 조사는 한국을 제외한 환태평양 국가의 행정학자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1992년에 실시된 조사는 한국의 행정학자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현대행정학의 메카라고 불려질 수 있는 미국과 우리한국과 역사적, 문화적, 인종적 여건이 비슷한 아시아권, 그리고 유럽행정과 그들의 자생적인 행정학이 교호되고 있는 오세아니아권을 분석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지역을 편의상 환태평양권이라 칭하였다.

21) 크레이브(Ian Craib)는 국제적으로 맑시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험이 정치형태로서는 완전히 인기를 상실한 채 사회과학으로서만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Ian Craib, *Modern Social Theory: From Parsons to Habermas* (London: Wheatsheaf, 1992), p.149.

한 귀결로 인해 국가간의 경제적 갈등이 심화되어 질것이며 이로인해 관세장벽,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표현되는 무역전쟁, 세계경제의 불록화현상이 가속되어 질것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서진영이란 이념적 체제간의 경쟁을 위해선 체제의 중앙집권적 운영이 국가 안보상 유익하고 능률적이었으나 양극화된 이념의 종속적 틀이 깨어지고 국제사회가 다원화, 다극화, 다변화되고 경제의 다원주의화가 물밀듯 밀어닥치는 상황에선 정부의 중앙집권적 규제강화로는 국가운영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지방분권주의, 자치주의, 자유재량권의 확대 등이 유의미성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정부규제의 완화현상이 가속되리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그리고 발생가능성은 위에 제시된 예상발생 요인보다는 약하지만 그런대로 유념해 볼 예상사태들로는 세계경제질서의 변화(84.6%), 세계정치질서의 변화(84.6%), 국제교류의 급격한 증대(84.6%), 자원 및 에너지위기(84.6%), 이데올로기의 변화(84.6%)를 들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명된 발생요인들과 유관되는 내용으로 탈냉전체제가 세계정치질서를 변화시킬 것이고 또한 세계경제질서를 변화시킬 것이며 또한 이러한 변화가 국제교류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임을 내다 보는 것이다. 그리고 종전까지의 자본주의인가 또는 공산, 사회주의인가하는 이데올로기에게는 종언이 고하여지고 새로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나 경제이데올로기 또는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 등이 새로운 대체적 이데올로기들로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교체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경제이데올로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한정된 지구자원의 과다한 사용과 그에 따른 낭비, 낭용등이 초래되어 임시적이거나 장기적인 자원고갈이나 에너지의 위기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약 5년간의 시차를 지니고 있는 1986년에 조사된 환태평양권의 학자와 실무자들의 연구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유사점과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금후 행정학에 빌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계환경으로 컴퓨터에 의한 기술혁신(100%)이나 이를 이용한 정보과학화의 사조도래(100%)들을 가장 중요한 예상발생 내용으로 제기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데올로기의 변화(82.4%), 정부나 국민의 도덕성, 윤리성문제(76.5%), 세계경제질서의 변화(76.5%) 등을 중요한 예상발생 내용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1992년에 조사된 내용과 상당한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볼때는 국내 학자나 실무자 그리고 환태평양권의 학자나 실무자들이 공히 향후 행정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계환경 요인에 동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자원 및 에너지위기(52.9%), 환경오염과 환경보호(47.1%), 신보수주의와 민족주의 대두(41.2%), 정부규제환경영향(35.3%), 복지사회건설(35.3%), 세계경제의 불록화현상(29.4%), 세계정치질서의 변화(11.8%) 등은 다소 상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시간이 변화됨에 따라 관심의 초점이 변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소련의 붕괴로 인한 사회주의권의 변혁이 탈냉전을 가져오고 그 결과 신보수주의와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세계경제의 불록화와 세계정치질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산업화, 도시화로 점차 가속되는 자원, 에너지위기와 환경오염, 보호문제 그리고 민주적 가치신장과 자율성확대에서 기인되는 복지사회 건설과 정부규제완화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생가능성의 강도에는 다소 편차와 차이는 있으나 관심의 영역이 동일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단지 간과해선 안될점은 다가오는 세계환경으로 신

22) 국제전략연구소(ISS)는 1993년 5월 국제전략보고서를 발표하면서 1992년을 민족주의자들의 의해 야만적인 도전이 자행된 '혼돈의 한해'였다고 규정했다. 또 민족갈등, 기아, 국가간 무역전쟁 등 문제를 해결코자했던 UN, EC, GATT등 국제기구의 시도가 실패하는 한계를 목도하는 한해였다고 ISS는 규정한다.

최평길, 『미리보는 코리아 2000』(서울:도서출판 장원, 1993), 18-19면에서 재인용.

보수주의와 민족주의의 물결이 거세어질 것이며 자원과 에너지문제가 심각히 인류의 관심을 끌게될 것이고 환경오염문제 그리고 인간적 삶을 보장받고자 하는 인류의 오랜 숙원에서 기인되는 복지사회의 구현, 정부규제완화 등이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한 잇슈로 부각될 것이란 점이 1986년과 1992년의 연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얻은 좋은 시사점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때 시차에 따른 발생가능성(확률)의 강, 약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발생할 예상사태의 잇슈에는 5년이란 시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일치되게 적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학자나 실무자 그리고 환태평양권의 학자나 실무자들이 공히 향후 행정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계환경 요인에 대해 동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향후 계속 발전하고 새롭게 발생할 행정학 교과목분야

(표 2) 계속발전하고 새롭게 발생할 행정학 교과목분야

예상교과목분야	발생빈도/확률	발생빈도/확률(환태평양)
환경행정	13(100%)	6(20.7%)
지방행정	13(100%)	2(6.9%)
계량행정학 및 방법론	13(100%)	6(20.7%)
복지 및 노동행정	13(100%)	
경제행정	13(100%)	4(13.8%)
정책과학	12(92.3%)	19(65.5%)
정보과학	12(92.3%)	20(69%)
행정윤리 및 행정책임	12(92.3%)	15(51.7%)
관리과학	12(92.3%)	9(31%)
행정철학 및 사상	11(84.6%)	
자원행정	11(84.6%)	1(3.4%)
조직론	11(84.6%)	29(100%)
정치경제학/공공관계론	11(84.6%)	
행정사	10(76.9%)	
정치와 행정	10(76.9%)	
공기업	9(69.2%)	
규제행정	8(61.5%)	12(41.4%)
국제행정	8(61.5%)	
비교행정	7(53.8%)	2(6.9%)

* 자료: 전계논문에서 재구성.. 160면, 1080면.

먼저 1992년도에 조사된 국내학자와 실무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자면 (표 2)에서 보듯이 금후 한국에서 계속 발전하고 새롭게 발생할 행정학교과목 분야에 대해 가장 강하게 제시된 견해는 100%의 발생확률을 나타낸 환경행정, 지방행정, 계량행정학 및 방법론, 복지 및 노동행정, 경제행정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의 세계 환경요인 문항과 서로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과학분명의 발달과 인간생활의 발달로 야기되는 어두운 부문인 환경의 파괴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필요성, 다원화, 다극화, 다변화되는 국내, 국제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화시대의 필요성,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문제해결적 전문능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미시적이고 계량적인 분석능력의 제고 필요성, 인간성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필요성 그리고 급격히 변모하고 있는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에 적응을 해야될 필요성 등이 바로 계속 발전하고 새롭게 대두될 행정학 교과목분야와 관련성을 밀접히 지니고 있다는 사고의 연계성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환경오염의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행정의 강화, 지방분권 시대와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의 강화, 인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복지 및 노동행정의 강화,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를 이겨나가기 위한 경제행정의 강화등이 금후 한국 행정학에서 계속 발전되고 새롭게 나타날 행정학교과목 분야라는 결론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인듯 싶다. 이외에 발생가능성의 강도는 약간 약하지만 발생확률 92.3%를 나타낸 정보과학, 정책과학, 관리과학, 그리고 행정윤리 및 행정책임이 향후 한국 행정학에서 계속 발전하고 새롭게 나타날 행정학교과목 분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다니엘 벨이나 허만 칸 그리고 앤빈 토플러나 존 네스비트 등이 예견했듯이 미래의 사회는 정보화사회가 될 것이다. 컴퓨터의 응용이 일반화되고 이것이 지니고 있는 강력한 연산능력과 추리, 논리능력이 인공두뇌학(cybernetics)을 가능케함으로써 인간의 취약한 두뇌능력을 보강하면서 가공할반한 정보처리 능력을 갖게될 것이며 이에 부가해 통신체계의 발달로 엄청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필요로 되는 어떠한 장소로든 이동시켜줄 수 있게 됨으로써 컴퓨터이상사회(Computopia)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 통신사회에서 정보과학은 매우 중요한 학문분야로 발전될 것이며 행정학도 정보화 사회를 관리, 운영해 나가기 위해선 이러한 관련분야의 지식을 포용, 소화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선 무엇보다 이론을 위한 이론으로써의 순수학문보단 실제 사회에 활용될 수 있고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의 척방학인 정책과학이 발달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해결의 궁극적 목표를 위해 한정된 자원을 활용키 위해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요구되며 이러한 미시적이고 계량적인 관리능력의 제고를 위해 관리과학 분야가 크게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불어 거시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보다 옮바른 행정의 방향성을 갖게하기 위해 그리고 진정 궁극적인 행정의 목표를 달성키위해 정부의 도덕성, 공직의 윤리관, 책무감 등과 관련된 행정윤리론이나 행정책임론 등이 중요교과목 분야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그리고 발생가능성은 발생확률로 볼때 84.6%로 위에 제시된 예상발생요인들의 발생확률보다는 약하지만 그런대로 유념해 볼만한 예상사태들로는 행정철학 및 행정사상, 자원행정, 조직론, 정치경제학 및 공공관계론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명된 발생요인들과 유관되는 내용으로 거시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옮바른 행정의 방향성을 갖게하기 위해 또한 보다 진정하고 궁극적인 행정의 목표를 달성키위해 깊이있는 사상이 연구, 논의되고 규명되어야 할것인데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제기되는 학문분야가 바로 행정철학과 행정사상론 분야이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한정된 자원만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경제적인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선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분배가 필요로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시적이고 계량적인 관리와 거시적이고 규범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자원행정 분야가 발전되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사회가 기존의 조직관점이나 구조, 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다원적이고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으로 조직관이나 구조, 체계를 변경, 적응시키기 위해 조직구상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로 될 것이기에 조직론에 대한 연구분야도 상당히 발전되어 질것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해결의 처방학으로써 정치적 해결방법으로 문제의 해결수단을 국한 시키지 않고 이에 부가해 경제적 접근에 의한 해결방법을 병행, 강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의 처방학을 강구해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필요성에 부합되는 분야가 바로 정치경제학인 것이다.

그리고 종전까지의 상의하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관(官)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국민을 행정고객으로 인식하고 행정고객 중심의 행정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필요성의 대두와 더불어 나타나는 학문분야로 공공관계론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이러한 학문분야들이 향후 한국 행정학 분야에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맞춰 계속 발전하고 새롭게 대두될 교과목분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약 5년간의 시차를 지니고 있는 1986년에 조사된 환태평양권의 학자와 실무자들의 연구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또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금후 계속 발전하고 새롭게 발생할 행정학 교과목분야로는 조직론(100%)이 가장 발생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정보과학, 컴퓨터학(69%)이며 그 다음이 정책과학(65.5%)이고 다음이 행정윤리 및 행정책임(51.7%), 규제행정(41.4%), 관리과학(31%)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992년의 자료와 비교를 해보면 환경행정, 지방행정, 계량행정 및 방법론, 경제행정, 관리과학, 자원행정, 비교행정 등이 커다란 발생가능성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것 역시 시간이 변화됨에 따라 관심의 촍점이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시간적 변화에 따른 관심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관심의 영역은 앞과 같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간과해선 안될점은 환경행정, 지방행정, 계량행정 및 방법론, 경제행정, 관리과학, 자원행정, 비교행정 등이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한 잇슈로 부각될 것이란 점이 1986년과 1992년의 연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얻은 중요시사점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차에 따른 발생가능성(확률)의 강약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발생할 예상사태의 잇슈에는 5년이란 시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일치되게 적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학자나 실무자 그리고 환태평양권의 학자나 실무자들이 공히 향후 계속 발전하고 새롭게 발생할 행정학교과목분야에 대해 역시 동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절 향후 계속 적용, 원용, 창출될 행정학 연구접근방법

1992년도에 조사된 국내학자와 실무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자면 (표 3)에서 보여 주듯이 금후 한국에서 계속 적용되고 원용, 창출될 행정학 연구접근 방법에서 가장 강하게 제시된 견해는 100%의 발생확률을 나타낸 계량분석적접근, 사례연구, 공공선택적 접근, 정치경제학적 접근, 다원주의적 종합학문적 접근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주요한 방법론적인 접근에서 미시적이고 계량적인 접근이 강화될 것이란 점과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접근방법으로 공공선택적 접근이나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보다 규범적이고 관념적인 의사결정접근법보다 선호될 것이란 점과 한국적 행정현실에 부합되는 한국의 행정사례연구가 강화되고 보다 다원적이고 종합학문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학제간의 협력과 교호를 통한 학문의 종합적 발전지향성의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 발생가능성의 강도는 약간 약하지만 발생확률 92.3%를 나타낸 역사적 접근, 현상학적 접근, 비교분석적 접근, 상황적 접근이 향후 한국행정학에서 계속 적용, 원용, 창출될 행정학 연구접근방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3) 계속 적용, 원용, 창출될 행정학 연구접근방법

예상연구접근방법	발생빈도/확률	발생빈도/확률(환태평양)
계량 분석적 접근	13(100%)	28(100%)
사례연구	13(100%)	4(14.3%)
공공선택적 접근	13(100%)	
정치경제학적 접근	13(100%)	
다원주의/종합학문적 접근	13(100%)	
역사적 접근	12(92.3%)	16(57.1%)
현상학적 접근	12(92.3%)	
비교분석적 접근	12(92.3%)	13(46.4%)
상황적 접근	12(92.3%)	
해석학적 접근	11(84.6%)	
Role-Playing/문화적 접근	11(84.6%)	
체제(체계)적 접근	10(76.9%)	15(53.6%)
구조기능적 접근	10(76.9%)	17(60.7%)
규범적, 관념적 방법	10(76.9%)	3(10.7%)
문헌분석/전략연구	9(69.2%)	
제도론적 접근	8(61.5%)	
법(法)적 접근	8(61.5%)	3(10.7%)
국가론적 접근	7(53.8%)	
해체주의(post-modernism)	7(53.8%)	

* 자료: 전개논문에서 재구성., 162면, 1082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현대와 같은 불확실성의 사회나 비연속적인 사회 또는 소용돌이와 같은 혼돈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과거의 역사에서 지혜나 교훈을 얻을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는 현실적 필요성과 각 제도나 규범 또는 문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병행해 역사적 비교를 통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러한 기반위에 현재의 문제나 미래의 위기를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 등에서 바로 이러한 역사적 접근이나 현상학적 접근이 의미를 지니게 되리라는 점이다.

그리고 현상의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위해 그리고 겸증된 현상파악을 위해 각 현상의 내용이나 실체를 비교하여 연구하는 비교분석적 접근이 많이 활용되어질 것이라 점을 예상하고 있으며, 변화무쌍한 현상의 이해를 위해선 어떤 절대적 기준에 입각한 이해보단 상황에 따른 상대적 기준에 따른 이해가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란 생각하에 상황적 접근이 보다 더 일반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상황적 접근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적응력있는 조화와 변화에 수반되는 문제나 위기에 시기적절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앞으로 유용한 접근방법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이다.

그리고 발생가능성은 위에 제시된 예상발생요인보다는 약하지만 그런데로 유념해 불만한 예상사태들로는 해석학적 접근(84.6%), Role-Playing, 문화적 접근(84.6%), 체계적 접근(76.9%), 구조기능적 접근(76.9%), 규범적, 관념적 접근(76.9%)을 들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 접근과 방법론적 의미가 유사한 해석학적 접근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역할수행적 접근(달조직적 의미를 많이 지닌 문제해결 접근방법), 그리고 하나의 현상의 문화적 생성, 발전 그리고 쇠퇴과정과 그 내용을 연구하는 문화적 접근,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 접근방법의 주종을 이루었던 체계적 접근이나 구조기능적 접근 그리고 커다란 방향이나 줄기를 잡으려는 가치지향적인 규범적, 관념적 접근이 시대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중요한 접근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인 시각에서 이상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자면 기존의 중범위적 접근인 체계적 접근이나 구조기능적 접근이 그대로의 유용성을 지니며 연구에 활용되면서 거시적이고 규범적인 접근인 역사적 접근, 규범적 접근도 연구방법의 시대적 패션과는 관계없이 보다 혼돈되고 불확실한 사회의 이정표로써의 접근법적 의미를 지닐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계량분석적 접근과 같은 미시적인 접근방법이 세련화되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사례연구나 공공선택적 접근, 정치경제학적 접근, 다원적이고 종합학문적인 접근이 새로운 시대변화와 학문의 추세와 성격에 따라 문제해결의 접근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약 5년간의 시차를 지니고 있는 1986년에 조사된 환태평양권의 학자와 실무자들의 연구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또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향후 한국에서 계속 적용, 원용, 창출될 행정학연구 접근방법으로 계량분석적 접근이 100%로 나타나 가장 높은 발생률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이 구조기능적 접근(60.7%), 역사적 접근(57.1%), 체계적 접근(53.6%) 순으로 유사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2년의 자료와 비교를 해보면 사례연구, 비교분석적 접근, 규범적·관념적 방법, 법적 접근 등이 커다란 발생가능성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것 역시 시간이 변화됨에 따라 관심의 촛점을 변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따른 관심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관심의 영역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간파해선 안될 점은 사례연구, 비교분석적 접근, 규범적·관념적방법, 법적 접근 등이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한 잇슈로 부각될 것이란 점이 1986년과 1992년의 연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얻은 중요 시사점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차에 따른 발생가능성의 강약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발생할 예상사태의 잇슈에는 5년이란 시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일치되게 적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이 중시되면서 중범위적 접근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체계적 접근, 구조기능적 접근, 사례접근법 그리고 보다 광의적으로 보면 비교분석적 접근도 중범위적 접근으로 볼 수 있으며 계량적 접근은 미시적 접근으로 볼 수 있고 역사적 접근은 거시적 접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의 시각에서 보았을때 환태평양권이나 국내의 행정학자나 실무자들의 의견은 상당히 균형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단지 시차에 의해 신학문적 접근법이나 방법론이 92년 조사에서 보다 많이 반영되었다는 것만 차이가 날뿐 실제 예상하는 내용에선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제4절 향후 행정학의 비교분석(비교행정)의 주요연구대상영역

1992년도에 조사된 국내학자와 실무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자면 (표 4)에서 보듯이 금후 한국에서 행정학의 비교분석(비교행정)의 주요 연구대상영역에 관해 가장 강하게 제시된 견해는 100%의 발생확률을 나타낸 관료체구조 및 행정영역, 도시 및 지방행정영역, 복지행정영역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비교분석이 가장 성행할 영역으로 조직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표 4) 행정학의 비교분석(비교행정)의 주요 연구대상영역

예상연구대상영역	발생빈도/확률	발생빈도/확률(환태평양)
관료제구조 및 행태영역	13(100%)	10(58.8%)
도시 및 지방행정 영역	13(100%)	4(23.5%)
복지행정 영역	13(100%)	4(23.5%)
행정 및 조직문화	12(92.3%)	
환경행정 영역	12(92.3%)	10(58.8%)
미래연구/사회변동론	12(92.3%)	
정책학관련 영역	11(84.6%)	12(70.6%)
정부기구, 제도 및 행태	11(84.6%)	
관리기법/Group Dynamics	11(84.6%)	6(35.3%)
각국의 행정사례비교	11(84.6%)	
조직론 영역	10(76.9%)	15(88.2%)
행정윤리 영역	10(76.9%)	10(58.8%)
규제행정 영역	10(76.9%)	7(41.2%)
공공관계/노사관계	10(76.9%)	8(47.1%)
자원행정	10(76.9%)	
행정철학 및 이념영역	9(69.2%)	6(35.3%)
재무행정 영역	9(69.2%)	5(29.4%)
토착화/정치와 행정관계	9(69.2%)	
인사행정 영역	8(61.5%)	12(70.6%)
국제행정 영역	7(53.8%)	

* 자료: 전개논문에서 재구성.. 163면, 1083면.

관료제구조와 행태부문이 지적되었으며 앞의 내용과도 상호연계되듯이 도시 및 지방행정영역, 복지행정영역도 비교분석의 주요대상영역으로 강조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외에 발생가능성의 강도는 약간 약하지만 발생확률 92.3%를 나타낸 행정 및 조직문화, 환경행정영역, 그리고 미래연구분야와 사회변동론분야가 향후 한국행정학의 비교분석 및 비교행정의 주요연구대상영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행정 그 자체가 다원화되고 분권화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각 행정문화나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로 되고 또한 문화의 차이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의 양태나 수습을 위한 방안, 그리고 평가의 방법 등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은 이해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문제의 조치를 위해선 무엇보다 획일적인 행정이나 조직의 이해보다는 각 문화적 특성에 따른 행정이나 조직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로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이나 조직문화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여러기준에 따라 연구하는 분야가 향후 비교분석의 영역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다음으론 환경행정영역인데 이것도 여러지역에 따라 또는 인적 요인에 따라 조직이나 행정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소들이 천차만별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정이나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나 환경이 다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효율성 높은 환경행정을 관리하고 환경정책을 창안키 위해선 이러한 환경적 요인간의 비교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런 의미에서 환경행정분야도 비교분석의 주요 영역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미래연구분야와 사회변동분야도 불확실하고 혼돈스런 미래를 주연구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차가 존재하며 사회변동 역시 각 사회가 지니고 있는 변동의 폭이나 깊이, 그리고 속도 그리고 내용등에서 많은 유사한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요한 비교분석의 대상이 되는 연구영역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발생가능성은 위에 제시된 예상발생요인보다는 약하지만 그린대로 유념해 볼만한 예상사태들로는 정책학관련영역(84.6%), 정부기구, 제도 및 행태(84.6%), 관리기법이나 Group Dynamics(84.6%), 각국의 행정사례비교(84.6%), 조직론 영역(76.9%), 행정윤리영역(76.9%), 규제행정영역(76.9%), 공공관계나 노사관계(76.9%), 자원행정(76.9%)을 들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의 행정이 단순한 관리의 차원을 벗어나 실제적으로 행정문제에 부닥쳐 전문적인 문제해결의 처방학으로써 의미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관리영역이상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처방학인 정책과학분야가 발전되어질 것이며 그렇기때문에 문제의 양태, 해결방법 등이 다양해 질 것임을 뜻한다. 따라서 보다 나은 처방전을 제시하기 위해선 각 정책적 상황이나 문제들에 대한 비교연구와 이에따른 다양한 대안들의 비교검토가 불가피할 것이고 또한 정책과학은 정책의 분야가 다양하고 그 과정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비교영역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서이다. 그리고 각종 다양한 정부기구나 제도 그리고 행태도 좋은 비교영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며 관리기법이나 집단역학도 문제에 처한 조직이나 집단의 내외적 상황에 따라 수용이나 해결의 정도가 차이가 날 것이기때문에 비교분야로써 의미가 있고 각국의 서로 다른 사례들을 연구하는 것도 행정의 문제해결능력을 제고시켜 줄 수 있기때문에 비교영역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외에 위에서 언급된 조직론 영역을 위시한 여러행정영역도 여러 사안의 차이, 경중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비교영역으로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약 5년간의 시차를 지니고 있는 1986년에 조사된 환태평양권의 학자와 실무자들의 연구결과와 비교를 하면 어느정도 유사점을 보이면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향후 한국행정학의 비교분석의 주요연구대상영역으로 조직론 영역이 88.2%로 나타나 가장 높은 발생확률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이 정책학관련영역(70.6%), 인사행정영역(70.6%), 관료제구조 및 행태영역(58.8%), 행정윤리영역(58.8%), 환경행정영역(58.8%)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직론영역이 가장 높은 발생확률로 나타난 것은 국내학자들과 다소 차이가 나지만 국내학자들도 발생가능성은 다소 낮게 책정하고 있지만 조직론의 비교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차나 상대적 중요성의 차이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사행정영역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기할만하다. 그러나 눈여겨 볼 것은 도시 및 지방행정영역과 환경행정영역, 복지행정영역등이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지방자치의 시행과 도시화추세에 따른 도시관련행정분야에의 관심, 그리고 최근에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개선에 대한 영향, 그리고 보다 높은 인간적 삶을 구가 하고픈 인간적 욕망과 현실적 필요성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어찌되었든 5년의 시차를 지니고 있지만 비교영역에 있어선 유사점 못지않게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특히 시대적 잇슈에 따른 비교영역의 관심도가 비례해 변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제4장 2000년대 행정학의 미래상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평가하고 그에 입각해 2000년대 행정학의 미래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행정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계환경요인으로 가장 강하게 제시된 견해는 과학기술의 혁신, 정보화 사회의 도래, 환경오염과 환경보호, 복지사회건설, 도덕윤리문제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과학기술의 혁신에 힘입어 정보화 사회가 도래되고 이러한 사회가 행정학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점과 복지사회건설을 이상으로 하여 행정학이 발전되어 나갈 것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되며 더불어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강화되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행정학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부가하여 세계경제의 블록화로 대변되는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나 세계정치질서의 변화, 남북관계의 변화, 정부규제 완화경향, 자원 및 에너지 위기 등과 이러한 모든 사태발전에 기인한 이데올로기나 가치관 또는 기존체제의 변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행정학이 이러한 급격한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선 문제해결적 전문능력을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되며, 이러한 위해선 보다 전문성에 기인된 기술, 정보능력의 제고가 필요로 되고 이에 못지않게 올바르게 인간의 이성을 지배할 확고한 이념이나 가치관 정립이 무엇보다 선결적이고 긴요한 과제라는 것을 환기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행정학은 보다 미시적이고 계량적인 방향으로 나가면서 전문기술능력을 제고시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거시적 측면에서 올바른 이념이나 가치관 정립을 위해 행정사나 행정이념, 행정철학 등이 비중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고 중범위적 차원에선 이러한 양극단을 조화시키는 분야들의 균형된 발전이 이루어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둘째, 향후 계속 발전하고 새롭게 발생할 행정학 교과목분야에 대해 가장 강하게 제시된 견해는 환경영정, 지방행정, 계량행정학 및 방법론, 복지 및 노동행정, 경제행정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의 세계환경요인 문항과 서로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며 그런 맥락에서 볼때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영정의 강화,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의 강화, 복지사회건설을 위해 복지 및 노동행정의 강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를 이겨나가기 위한 경제행정의 강화 등이 향후 행정학에서 계속발전되고 새롭게 나타날 행정학 교과목 분야라는 것이다. 그 다음이 정보과학과 컴퓨터학, 인공두뇌학, 정책과학, 행정윤리 및 행정책임, 관리과학 등의 첨단과학 이론분야와 가치관 정립을 위한 규범학 분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주지하였듯이 행정학을 둘러싼 급격한 세계환경의 변화양태가 이러한 학문분야의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과학기술문명의 발달로 인해 그리고 거기애나 산적해가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혁신이나 컴퓨터화와 같이 미시적이고 계량적인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선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 행정학의 교과목분야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라는 것은 가능한 논리적 추론인 것이다. 그리고 가치와 사실을 포용하는 정책과학이나 가치적이고 규범적인 영역을 다루는 행정윤리 및 행정책임이나 사회정의, 공공윤리론의 대두는 앞에 나온 거시적 접근분야의 대두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써 향후의 행정학 교과목으로 계속 발전될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향후의 행정학 교과목은 미시적인 부문과 거시적인 부문이 서로 주가되면서 이를 조화하고 절충하는 정책과학분야 등이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세째, 향후 계속 적용되고 원용, 창출될 행정학 연구접근방법에서 가장 강하게 제시된 견해는 계량분석적 접근, 사례연구, 공공선택적 접근, 정치경제학적 접근, 다원주의적 종합학문적 접근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주요한 방법론적인 접근에서 계량적 접근이 강화될 것이란 점과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접근방법으로 공공선택적 접근이나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보다 규범적이고 관념적인 의사결정접근법보다 선호될 것이란 점과 각 나라의 행정현실에 부합되는 행정사례연구가 강화되고 보다 다원적이고 종합학문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학제간의 협력과 교호를 통한 학문의 종합적 발전지향성의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째, 향후 행정학의 비교분석(비교행정)의 주요 연구대상 영역에 관해 가장 강하게 제시된 견해는 관료제구조 및 행태영역, 도시 및 지방행정영역, 복지 행정영역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비교분석이 가장 성행할 영역으로 조직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관료제구조와 행태부문이 지적되었으며 앞의 내용과도 상호연계되듯이 도시 및 지방행정영역, 복지행정영역도 비교분석의 주요대상영역으로 강조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제5장 맷음말

지금까지 분석 평가된 2000년대의 행정학의 미래상에 대한 견해들은 미래의 한국행정학의 발전방향추세와 토착화의 전개양상을 보다 적절하게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우선 한국행정학은 앞으로 한국행정이 선진화될때까지 계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국토양에 맞는 행정과학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역할감소와 이에따른 세 3 sector에 대한 관심증대가 예상되며 시민의 coproduction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현행의 교육내용이 어느 시기엔 행정현실과의 괴리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타개를 위해선 관·학협동의 노력이 요구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속에 한국적인 다양한 가설과 이론들이 정립되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논거는 이제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지고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과 기능이 변모, 다원화되어지고 있으며 사회환경적 변화로 인해 학문적 파라다임이 변모될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고 행정학자들도 많이 증가한만큼 연구분야별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한국고유의 행정학분야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선진 구미행정학을 수용하고 있는 한국의 현 행정학의 위상을 고려해 볼때 한국행정학도 앞에서 조망한 행정학의 미래상에서 예측된 방향과 내용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사료되며 한국행정학의 토착화는 이러한 세계행정학을 둘러싼 환경이나 흐름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면서 발전되어 나갈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때 한국행정학의 미래적 전망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토착화를 기반으로하여 다가오는 급변적 세계환경에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이론분야나 접근법이 보다 계량화되고 문제해결지향적으로 흐름으로써 한국적 이론의 정립을 꾀하고 방법론의 세련화를 꾀함으로 인하여 한국행정학의 독자성(identity)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긍정적 사고속에서 한국행정학의 밝은 미래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로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택, “행정학 연구방법의 변천과정과 앞으로의 방향”, 『한국행정학보』, 제21권 제1호 (1987.6)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평화통일 기반조성 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82.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북한의 대외정책변화 양상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83.
- 김광웅, 『행정과학서설』, 서울: 박영사, 1983.
- 김동현, “한국의 사회변동과 행정의 역할” 김번옹 외, 『현대한국행정론』, 서울: 박영사, 1991.
- 박동서, “2000년대의 정치·행정발전방향”, 『행정논총』, 제22권 제2호(1984)
- 박동서, 『한국행정의 미래상』, 서울: 법문사, 1988.
- 박동서,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정치·행정과 인간개발의 과제”, 『한국행정의 발전』, 서울: 법문사, 1983.
- 서규환(옮김), 다니엘 벨(저), 『2000년대의 신세계질서』, 서울: 도서출판, 1993.
- 윤재봉, “한국의 행정학교육 : 대학행정학과 학사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21권 제1호(1987.6)
- 이병철, “공산권의 개혁, 개방화에 따른 북한의 변화예측연구: 넬파이분석기법을 중심으로”, 『북한·통일 연구논문집(Ⅱ)정책변화 분야』, 서울: 통일원, 1990.
- , “구미행정학의 한국에서의 도착화 과정과 한국행정학의 미래전망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 “한국행정학의 미래전망에 관한 연구: 넬파이분석기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26권 제4호 (1992. 겨울).
- 전종섭(저), 윤재봉 외(역), 『행정학: 구상과 문제해결』, 서울: 박영사, 1987.
- 최평길, 『2000년대의 남북한 관계전망』, 서울: 국토통일원, 1986.
- , 『미리보는 코리아 2000』, 서울: 도서출판 장원, 1993.
- 황동준, 양재도, 『남북한 관계예측에 적용할 넬파이기법등 제기법의 응용에 관한 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77.
- 황동준, “미래상황 예측방법의 실제와 응용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 제3권, 제1호.
- Bell, Daniel, “The Future World Disorder: The Structural Context of Crisis”, *Foreign Policy*, No. 27, Summer 1977.
- ,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Basic Book, 1976.
- (ed.), *Toward The Year 2000: Work in Progress*, Boston, Mass.: Beacon Press, 1967.
- Craig, Ian, *Modern Social Theory: From Parsons to Habermas*, London: Wheatsheaf, 1992.
- Drucker, Peter F., *The Age of Discontinuity: Guidelines to Our Changing Society*, New York: Harper and Row, 1969.
- Galbraith, John, Kenneth, *The Age of Uncertainty*, Boston, Mass.: Houghton Mifflin Co., 1977.

- Jones, E. Thomas. *Options for the Futur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0.
- Kahn, Herman, and Anthony J. Wiener. *The Year 2000: A Framework for Speculation on the Next Thirty-Three Years*. New York: Macmillan, 1967.
- Kahn, Herman, and William Brown. "A World Turning Point-and a Better Prospect for the Future". *Futurist*, December 1975.
- Kahn, Herman. *The Next 200 Years*. New York: Morrow, 1976.
- Kim, Bun Woong. "The Democrat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Vol.17, 1991.
- and Gerald E. Caiden(eds.). *A Dragon's Progress: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Korea*. West Hartford: Kumarian Press, 1991.
- Kuhn, Thomas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Il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 . *The Essential Tension*. Chicago, Il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 Naisbitt, John. *Megatrends: Ten New Directions Transforming our Lives*. New York: Warner Books, 1984.
- Strauss, Harlan J., and L. Harmon Zeigler. "The Delphi Technique and its Uses in Social Science Research", in R.D.Bingham and M.E.Ethridge (eds.), *Reaching Decisions in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New York: Longman Inc., 1982.
- Toffler, Alvin. *The Third Wave*.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 1980.
- . *Future Shock*. New York: Boston Books, 1971.
- . *Power Shift: Knowledge, Wealth and Violence at the Edge of 21st Century*. New York: Boston Books, 1990.
- Wald, Emanuel. "Toward a Paradigm of Future Public Administration", *PAR*, Vol.33, No.4, 1973.